

2020년 제34 회 청소년정책포럼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

일시 2020년 10월 21일(수) 15:00~17:00

장소 온라인 생중계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년 제34회 청소년정책포럼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

일시 2020년 10월 21일(수) 15:00~17:00

장소 온라인 생중계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1주년 기념 「제34회 청소년정책포럼」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

일시 2020년 10월 21일(수) 15:00~17:00

장소 온라인 생중계  **YouTub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검색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프로그램

*토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간	발표 및 내용
15:00~17:00	참석자 소개 인사말 : 송 병 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패널토론 : 진행 : 김 현 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토론주제 · 그래도 멈출 순 없다(코로나 시대, 청소년 현장의 고군분투 그리고 청소년들의 성장이야기) · 새로운 도전, 비대면 시대의 청소년사업 · 청소년정책의 미래(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을 말하다)
	온라인 참여자 질의응답 종합토론 및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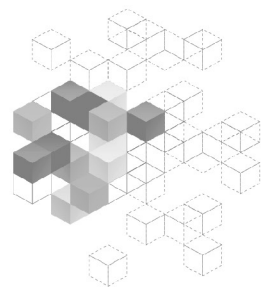
CONTENTS

1. 우리 사—이 괜찮아요? :
재난을 마주한 우리의 '연결'과 '거리' 1
황 윤 옥 (하자센터 센터장)
2. 코로나로 더 간절해진 마을의 교육력 7
김 경 옥 (민들레 대표)
3.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 사례 13
장 흔 성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4.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질서를 꿈꾸며 21
홍 문 화 (자유학교 공동대표)
5.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청소년활동 27
최 지 나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업무팀 팀장)
6. 코로나 시대, 그래도 멈출 순 없다 33
심 수 현 (구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1

우리 사—이 괜찮아요? : 재난을 마주한 우리의 '연결'과 '거리'

황 윤 옥 (하자센터 센터장)



우리 사—이 괜찮아요? : 재난을 마주한 우리의 '연결'과 '거리'

황 윤 옥 (하자센터 센터장)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커다란 문제의식 중 하나는, '연결되기 위해서는 거리가 필요하고,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연결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택배노동자의 노동처럼 보이지 않던 연결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우리의 연결은 서로의 안전을 위한 물리적 거리를 두었기에 가능했던 것처럼요. 코로나19라는 재난은 어쩌면 우리 사—이의 간극이 새로운 사이(관계)를 만들어갈 계기가 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난을 마주한 지금, 우리의 사이는 괜찮은 걸까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이여야 할까요? - 2020년 제12회 하자센터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초대의 글 중에서

공공공간과 개인공간의 사이에서 청소년공간이 사라지다.

학교와 공공기관이 문을 닫았다. 청소년공간들도 공공기관이니 문을 닫았다. PC방과 노래방같이 청소년이 자주 오가는 공간들은 코로나에 취약한 탓에 위험한 공간이 되었다. 집은 안전한 공간이다. 그런데 집은 청소년의 공간이 아니다. 특히 심리적으로는 더 그렇다. 코로나의 대안으로 많이 얘기되는 재택과 드라이브스루는 집과 차를 전제로 하니, 청소년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게다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동네책방같은 민간 문화공간마저 운영난으로 닫히고 있다. 공공기관과 수익이 나지 않는 민간문화공간이 닫히면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나의 안전은 남과 연결되어있다.

남이 마스크를 써야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동네의 확진자에 관심이 가면서 공동체가 안전해야 내가 안전하다는 상식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자가격리, 확진자 동선, 공적 마스크 등 우리의 안전을 위한 많은 말들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런데 안전과 안심은 비례하지 않는다. 어쩐지 불안은 더 커지고 예민해져가는 것 같다. 청소년들은 안전한 공간, 안심할 수 있는 공동체와 연결되어야하지 않을까.

비대면은 콘텐츠가 아니라 연결이다.

비대면은 서로 멀리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화면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 비대면이 주는 거리를 좁혀주는 효과이다. 비대면은 대면보다 연결의 욕구가 더 크다. 대면은 이미 ‘만나서’ 시작하니, 연결을 의식할 필요도 없지만 비대면으로 무엇을 하려면 먼저 서로 연결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연결이 유지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계속 살펴야 한다. 비대면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은 비대면의 만족도는 좋은 콘텐츠보다 좋은 상호작용이라는 것이다.

어떤 경험은 우리를 예전으로 되돌아 갈 수 없게 한다.

비대면 수업은 난감한 면이 많다. 그런데 교사 눈 앞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없다. 학생들이 모두 집에 있으니 실제 서로 싸울 일이 없다.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일보다 갈등을 조정하는 일에 더 많은 기운을 썼다는 것을 문득 깨닫기도 한다고 한다. 코로나와 함께 청소년들에게서 어떤 경험은 사라지고 어떤 경험이 새로 생기고 있는 것일까.

일상을 유지하는 면역력,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는 전환력이 필요하다.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재난과 더불어 사는 현재의 새로운 상식이 무엇인지도 아직 잘 모른다. 비대면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 대면 세계와 비대면세계를 오가며 살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면역력은 무엇이며,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는 전환력의 핵심은 무엇일까.

코로나 시대 청소년 활동의 출구는 어디일까

올 해 하자센터 서울청소년창의서밋에서 코로나와 함께 살기위한 하자의 실험들이 소개되었다. ‘미스터리 엑시트 : 하자 온택트 프로그램 쇼케이스’라는 이름으로 다섯가지 실험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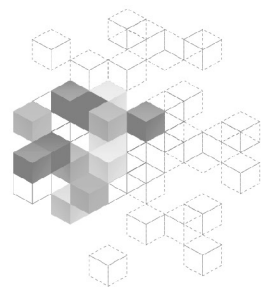
- 비대면 청소년 영상제작 캠프 ‘방구석 캠프파이어’ - 모니터 너머로 온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영상제작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만 활동하면서 10일 동안 ‘코로나19 랜선청소년목소리’를 발굴하여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 오디세이학교의 모두의 도시락 - 코로나 19 이전에는 너무 쉬웠던, 그러나 이제는 너무 어려운 미션,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을 수 있을까. 각자의 공간에서 밥과 반찬을 만들어 화면으로 모여서 ‘큰 밥상’을 차리고 ‘함께’ 먹었다.

- 이메망(이번 메이킹은 망했어) 프로젝트와 독립러 프로젝트 - 코로나 시대, 메이킹 그리고 재료의 순환. 세상이 망할 것 같아, 먼저 메이킹에서 마음껏 망해보자, 의외로 세상과 연결이 되네, 혼자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매체를 통해 매력있는 선배그룹과 같이 작업을 하기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도 하면서 삶의 결을 확장해 가는 독립러들.
- 하디에(하자디지털 에디터즈) - 코로나시대, 온라인으로 '일'을 배울 수 있을까. 청소년의 일경험을 온라인으로 만들자. 온라인에서 청소년과 뉴미디어콘텐츠 만들기. 온라인으로 하자 공식 인스타그램과 뉴스레터에 발신되는 콘텐츠를 청소년이 직접 기획, 제작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 음악작업장 뉴트랙 - 합주와 공연이 없이 온라인으로만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 결국 온라인에서 따로 또 같이, 서로 피드백과 도움을 주고 받으며 음악이 되는 경험을 하다.
- 참고자료 : 하자센터, 긴급매뉴얼, 코로나시대 하자의 20가지 실험들

2

코로나로 더 간절해진 마을의 교육력

김 경 옥 (공간민들레 대표)



코로나로 더 간절해진 마을의 교육력

김 경 옥 (공간민들레 대표)

활동가의 문제의식 - 모래알처럼 흩어져버리는 사람들

두잇이라는 별칭으로 정릉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기획자 양혁진씨는 지난 5년 간 정릉시장 안 시장 개울장을 운영해왔다. 개울장은 북한산 아랫마을 정릉의 작은 내 정릉천변에 벌린 작은 시장이다. 성북지역의 전통시장 중 하나인 정릉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작업자가 서로 만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한 일이다. 5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 개울장은 정릉 사람들에게겐 자연스런 일상의 축제가 되었다. 멀리서도 개울장을 보러 오는 사람이 생기고, 이들이 재래시장인 정릉 시장도 들러 가면서, 처음엔 고개를 가우뚱하던 시장 상인들까지 개울장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개울장은 단순히 핸드메이드 물건을 팔고 사는 시장을 넘어 사람들의 관계와 활동이 만들어지는 지역의 축제로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그 가운데 개울장의 운영자 두잇이 있었다.

개울장이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두잇의 문제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개울장의 자원봉사자로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주목했다. 인근의 고려대 부속중학교나 북악중학교 학생 등이 주로 개울장을 찾아왔고, 그들은 대부분 개울장의 의미나 취지는 잘 모른 채, 그저 자원봉사 점수가 필요해 이곳을 찾았다. 그럼에도 장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안내자 역할도 하고 청소도 하고 때론 공연도 하며 개울장의 감초 노릇을 하곤 했다. 그렇게 모르고 왔다가 어느새 개울장의 주요 참여자가 된 청소년들이지만, 자원봉사 시간을 채우고 나면 언제 왔느냐 싶게 사라져 버리곤 했다. 두잇은 이런 상황을 두고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 빠져 나가듯 사라졌다'고 표현했다. 기왕에 만나게 된 청소년들과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헤어지는 게 서운했다. 개울장이,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관계가 만들어지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되어가는, 마당의 역할을 해내고자 한다면 이 청소년들과의 만남도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에서의 봉사활동을 관계와 성장의 발판으로

활동가의 문제의식은 그 다음 활동으로 이어졌다. 두잇은 개울장에서의 문제의식을 성북 지역의 다른 활동가들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2018년

1월의 일이다. 성북의 각종 문화예술작업과 축제의 중심에 있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흥봉기와 문화변압기의 김지희(지니야)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의 배용과 지역과 교육의 연결을 고민하는 공간민들레의 김경옥이 모여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모임에서는 먼저 문제의식을 심화시키는 일부터 시작했다.

10년 가까이 혁신교육을 포함해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육과 같은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사업명이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만들어가야 할 목표 같은 것이기도 하다. 대도시 서울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마을이 배움터가 되기 어렵다. 아이들은 마을에 속한 사람이긴 하지만 자신을 마을사람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 그저 집이 거기에 있을 뿐 지역은 자신과는 무관한 곳이다. 일상으로 학교 교문을 나와 집으로 오는 길에 정릉시장 어느 분식점에 들러 떡볶이를 사먹기도 하지만, 소비자와 장사치의 만남에 그친다. 어느날 주머니 사정이 좀 여유가 있어 피시방에서 놀고 햄버거도 맛있게 먹지만 주인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다. 주인은 아이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저 그림자 같은 존재다. 그 분이 무슨 생각을 하며 피시방을 운영하는지, 햄버거집 아저씨의 인생철학은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 아이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을 만나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내 아이가 살고 있는 동네지만, 그 동네의 평화와 안녕과 그 곳에 있는 아이의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하나도 모른다. 알려고 해본 적도 없다. 그저 피시방에 들르는 손님이거나 햄버거를 팔아주는 손님에 지나지 않는다. 서로 날마다 관계를 맺고 있지만 관계가 없다.

이처럼 서로는 모르는 사람으로 무관한 사람으로, 거리에서 가게에서 개울장에서 만나도 서로에겐 별 기억 없는 타인으로만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아이는 그렇게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듯 보이는 지역에서 알게 모르게 ‘사람 사는 법’을 배운다. 이때 아이들이 배우는 ‘사람 사는 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현명한(영악한) 소비자 노릇이거나 이해관계를 제대로 따지며 손해 보지 않고 사는 법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걸 배우고 가르치는 걸 일러 ‘마을교육’이거나 ‘마을교육공동체’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마을교육이나 마을교육공동체는, 서바이벌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마을을 넘어서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움직임일 것이다. 아침저녁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애쓰고,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이해관계가 아닌 연대와 사랑과 협력’을 배우고 지역에서 실천할 거라는 상상이 바로 마을교육공동체다. 이는 사업이 아닌 문화운동이자 생활운동이다.

성북은 아직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서울의 여느 자치구에 비해서는 지역의 연결망이 꽤 구성되어 있는 편이다. 일찌감치 혁신교육이 실천되기도 했고, 공유원탁 등의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도 있다. 지역의 사람들이 지역의 일을 지역에서

함께 해나가는 문화가 일정 정도 만들어져 있는 편이다. 아직 지역과 교육이 서로 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이미 지역의 사람들은 지역의 아이들을 걱정하기도 하고, 도움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하는 등 ‘교육적인 지역성’을 띄고 있는 편이다. 특히 개울장이 있는 정릉지역은 ‘교육’을 화두로 지역의 고민이 펼쳐진 적은 없지만, 다른 연대활동이나 네트워크나 커뮤니티 활동은 성북의 어느 동네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개울장은, 거기에는 지역상인, 문화작업자, 지역활동가, 지역의 청년 등이 한 데 어울려 뭔가를 해내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자원봉사 점수를 얻으러 개울장을 찾고 떠나버리지만, 개울장은 이미 청소년들의 훌륭한 삶의 배움터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두잇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은 지역의 축제인 개울장을 청소년의 주체적 활동터이자 배움터로 만들어 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저 스쳐가는 사람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어린 시민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적 그물망’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마을 활동을 가속화시키다.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의 활동에 함께하며,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과 소통하며, 주체적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어린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정릉이라는 지역과 그곳에서 행해지는 개울장이라는 작은 축제, 그리고 그 축제를 음으로 양으로 만들어가는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린 그림이다. 이 활동을 구상하면서 특별하게 설정한 것은 청년의 역할이다. 지역과 청소년을 연결하는 매개자를 전문가나 작업자가 아닌 평범한 청년으로 설정했다. 청소년보다는 한결음 더 나아간 존재로, 전문가나 작업자나 교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관계성을 만들 수 있는 이가 바로 청년이기 때문이다.

청년은 아직은 부유하고 있고, 미래가 불안하고, 흔들린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하기는 청소년과 거의 비슷하다. 이점이 있어 청소년과 지역의 매개자로 청년을 설정하기도 했다. 청년은 청소년을 돌보거나 청소년의 성장을 도우면서 스스로도 도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울 때 자신도 돕는다는 삶의 진리를 청년들이 이 기회에 배우기를 바란 것도 있다. 지역과 청년과 청소년의 그물망이 만들어 낼 작은 기적을 꿈꾸며 설계한 것이기도 하다.

2019년도의 시도는 부족하기는 해도 모두에게 일정한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처음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활동을 해보자며 의기투합한 사람들은 이 활동이 마을에서 청소년을 함께 성장시켜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과 청년 그리고 청소년이 서로 연결되어 활동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을’이 낯설었던 청년도 청소년도 어느새 마을을 소중한 삶의 공간이자 배움터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말들을 했다. 그곳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터라, 사람도 장소도 그냥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활동 소감이 고무적이었다. 청소년의 매개자로 일종의 도우미 같은 역할로 참여했는데, 그렇게 청소년들과 마을을 깊숙이 들여다 보고 관계를 맺다 보니, 자신의 진로가 보인다는 이야기도 했다. 2019년 이 활동을 함께한 몇몇 청년은 이 활동을 계기로 성북에서 일을 찾기도 했다.

2020년 봄이 오고, 지난해의 활동을 좀 더 진화시켜 해보기로 했던 논의는 코로나로 길을 잃었다. 코로나 재난 상황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지금까지 인류가 새겼던 교훈을 일거에 부수고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는 새로운 지침을 안겨준 탓이다.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은 섣다른 되고, 모든 활동이 중지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공공기관의 활동은 더욱 어려워졌다. 누구도 방역에 구멍을 낸 ‘1호’가 되고 싶지는 않았던 거다. 그런 중에 지난해 함께했던 청소년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고 싶어요.” “동네에선 괜찮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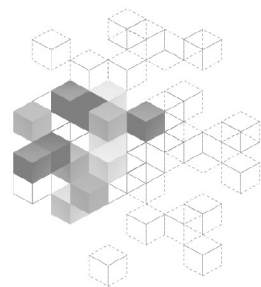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는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 방역에 구멍을 내지 않고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마을을 떠올렸다. 멀리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지 않고, 가까운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어딘가, 걸어서 만날 수 있는 곳이면 위험은 덜할 것이다. 그러다 마을 회관에서 음식을 나눠먹고 감염에 이른 분들의 뉴스를 들으며, 더 안전하게 만나려면 어떻게 하지를 또 고민했다. 먹는 것은 참고, 5명 이하의 작은 소집단으로 만나기로 정했다. 이런 고민은 청소년과 함께 나누었다. 이 과정을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들의 만남에 대한 욕구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기에 가능했다.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감수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전향적인 태도는 코로나가 준 선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청소년은 활동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지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 활동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활동하기 위해 현재의 조건에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시도해야 하는지를 다 같이 물어야 한다.

3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 사례

장 흔 성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 사례

장 흔 성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 코로나 시대 다문화가족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1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 캠프

○ 배경

- 다문화가족을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건강한 시민으로 통합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인적 자원 육성
-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육성될 수 있는 강점은 이중언어
-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이중언어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학습환경과 교육체계의 장기적 계획 필요
-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 대면 교육의 공백 발생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권 확보 등을 위한 온라인교육

○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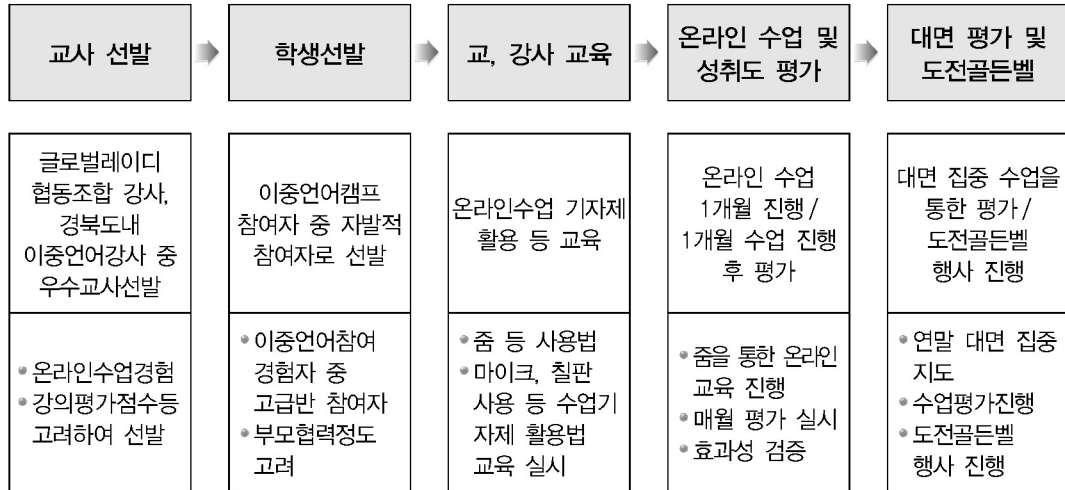
-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두 개의 문화와 언어를 접하는 강점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의 강점인 이중언어 능력을 강화하여 부모나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학업능력 향상으로 미래 글로벌 인재로 육성

○ 사업내용

- 2015년부터 2020년 1월까지 겨울방학, 여름방학 중 2주간 집중캠프를 통해 베트남, 중국출신다문화가족자녀 60명을 중국어, 베트남어 집중 교육, 진로지도, 심리지원, 체험활동 등 진행하던 사업을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8월 여름방학 캠프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진행
- 온라인 수업 70%, 대면 집중지도, 도전골든벨 등 30% 병행하여 진행
 - 중국어 고급반 16명 선발 주중 2개반, 주말2개반 수업 진행
 - HSK 시험대비반 10명 선발 1:1 개별 수업 진행 (2020년 10월 17일 3명 시험 응시)

- 베트남어 고급반 9명 선발 주중 1개반, 주말1개반 수업 진행
 ※ 2020년 10월 베트남어 중급반 2개, 중국어 중급반 2개 추가 개설 실시 예정
- 온라인 수업 1개월 진행 후 매월 성취도 평가 진행
- 2020년 12월 중 대면 집중 수업 진행 및 도전 골든벨을 통해 성취도 평가

○ 사업진행 모형



○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인한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 교육 공백 해소
- 다문화가족자녀들의 언어구사 능력을 강화로 자신감 함양 및 진로의 긍정적 영향
- HSK 능력시험응시 및 자격취득으로 자긍심 향상
- 다문화 이해 및 다국어 구사 등 글로벌 인재로 육성, 사회적 자원으로 역할 기대
- 다문화가족자녀의 강점인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강화하여 부모나라에 대한 이해 및 부모자녀 관계 증진

2 다문화가족자녀 학습 및 진로지원사업

○ 배경

- 다문화가족자녀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필요
 - 2018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결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이유가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가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95.3%로 높게 나타남
- 경상북도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19. 장훈성 외)의 제안
- 다문화가족 자녀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요구
- 진로지도를 통해 진로 탐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장애물과 위기상황을 긍정적으로 극복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결혼이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 필요
-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도 오지인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캠프 형식의 집합 교육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온라인교육 진행

○ 목적

-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을 통한 진로장벽 극복
- 다문화가족자녀의 학업능력 및 학교 적응력 향상
- 진로 탐색 및 이해를 통한 진학지도
- 부모교육과 심리·정서상담

○ 사업내용

- 온라인수업 70%, 수업 진행 전 사전평가 진행, 수업진행 중간점검, 종료 후 평가 진행 30% 대면수업 병행
- 학령기 다문화가족자녀 중 학습의 난이도, 학습량이 늘어나는 시기인 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학습지도
- 진로지도, 상담·정서 과목 강사 강의 내용을 이중언어강사를 활용하여 원어로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번역하여 진행
- 학습과목

NO	교육내용	시수	비고
1	학업지도 (국어, 수학, 사회)	30(과목별10시간)	현직 초등교사 직접 수업진행
2	진로 및 진학지도	10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3	심리·정서 상담, 셀프리더십, 부모교육	10	심리, 정서상담 부분 전문가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총 시수		50시간	

- 수업방법
- 구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학습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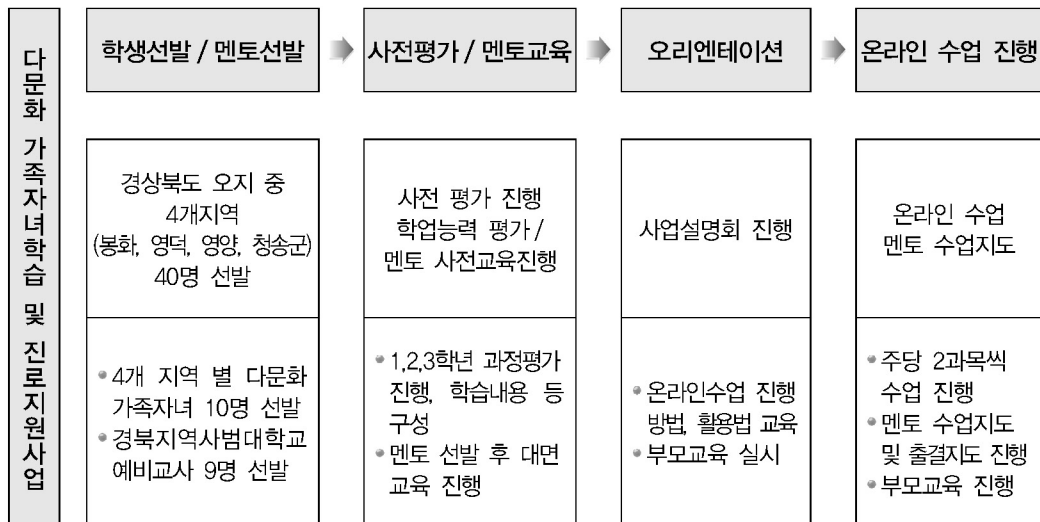
- 밴드, 카톡방 개설 교과별 학업지도 교사와 질의 응답 등 학업 관련 사항 관리
- 참여 학생별 멘토(경북소재 사범대학 예비교사)연결 1:4 수시 개별 수업관리 및 지도
- 참여대상자와 사업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사업설명회), 사전평가 진행
- 중간점검, 최종 성취도 평가를 진행하여 효과 검증
- 부모교육 (진로지도, 상담정서지원) 한국어, 원어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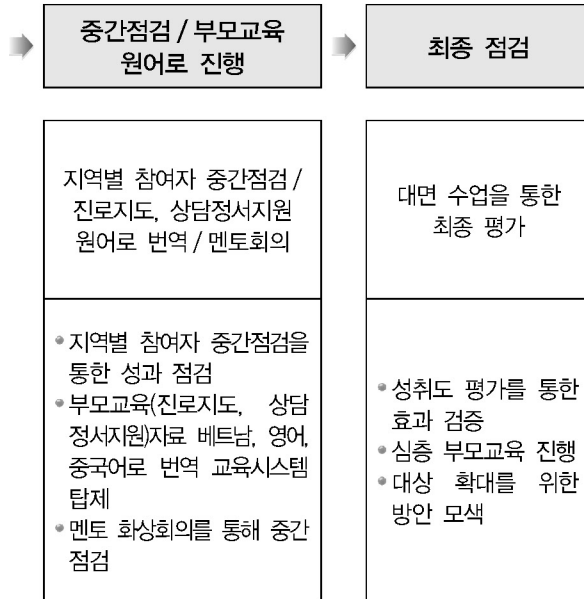
○ 사업지원 모형

NO	기관명	지원내용	비고
1	경상북도 여성가족행복과	예산 및 행정적 지원	
2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주관 / 멘토 교육 및 관리	
3	대상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선발 및 사업협력	
4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멘토(예비 교사)연계	
5	대구교육대학교	사업자문	

○ 사업진행 모형

- 경상북도,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구교육대학교 등 전문가(초등교사, 교육대학교수, 상담전문가) 간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추진 효과성 제고
- 사업의 밀집도, 집적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전문가로 자문단 운영
 - 현장전문가 :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중간관리자로 구성
 - 교육전문가 : 대상지역(봉화, 영덕, 영양, 청송)교사로 구성





○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인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 공백 및 어려움 해소
- 기초학습 능력 향상으로 학업에 대한 자신감 향상
- 적성과 흥미 발견, 진로정보 수집 등 상위 학교 선정에 대한 사전준비 능력 향상
- 심리 정서적 안정 및 자신에 대한 이해 및 긍정적 태도 형성
- 부모의 자녀학습과정과 진로지도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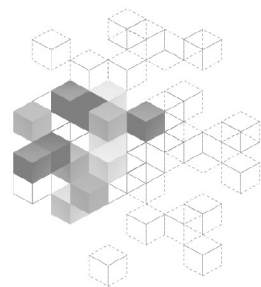
3 향후 계획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 교육공백 해소를 위한 비대면 교육 환경 조성
 - 비대면 교육, 영상 제작 스튜디오 조성 (동영상강의, 제작을 위한 녹화 시스템 확보)
 - 다양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23개 시·군 맞춤형 제작 및 제공
-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교육 년 중 온라인 교육 진행
- 다문화가족자녀 학업 및 진로지도사업 확대 운영
 - 지도 학년 확대 (4~5학년)
 - 지역 확대 (경북 23개 시·군 전지역)

4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질서를 꿈꾸며

홍 문 화 (자유학교 공동대표)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질서를 꿈꾸며

홍 문 화 (자유학교 공동대표)

나는 현재 노원의 위탁형대안학교에서 중,고등학생에게 명상, 진로수업을 한다. 진로와 명상이라고 하면 좀 의아하던 반응이 보통인데 스스로를 잘 알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수업으로서 하나는 현재에서 나를 만나는 것이고, 하나는 미래 지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다. 올해 4월,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나는 덴마크를 향해야 했다. 대안학교의 수업은 다른 강사를 찾거나 혹은 임시방편을 찾기로 얘기가 된 상태였다. 그러나 코로나로 하늘 문은 닫혀버렸고 결국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으로 다시금 한 해의 수업이 시작되었다.

온라인 개학을 앞둔 그 시기, 수업 진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학교 교무부장 선생님이 집 앞까지 찾아오셨다. ‘굳이 집 앞으로까지 찾아올 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위탁형대안학교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 혹여라도 강사가 “너무 힘들어서 강의 안하겠다”라고 해버리면 학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가 힘들다. 그만큼 모든 조건이 열악하다. 10년 전, 광명의 모 위탁형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해서 한 달 동안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SOS요청을 받고 한 학기 강의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다. 위탁형대안학교는 불모지 같다. 메마른 땅, 내가 가진 물을 200%, 300% 쏟아부어도 땅이 짹짹 갈라진다. 교육 시스템, 학교의 열악함과 교사의 소진, 가정의 문제, 학생의 정서적 결핍 모든 게 복합적이다. 솔직히 나도 덴마크행을 핑계로 떠나고 싶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코로나는 나에게 다시 밥을 지어 아이들에게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수업으로 경험한 3가지의 기쁨

학생에서 학습자로

코로나의 무기력을 치유하는데 온라인 수업이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며, 묘한 설렘을 느끼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며 그 어느 때보다 “자발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 이것은 비 교과수업의 숙명이기도 하지만, 나 역시 온라인 강의를 듣다가 꺼버린 경험을 수도

없이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눈앞에 아이가 있으면 이름을 부르거나, 등을 토닥여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나는 10분짜리 영상을 촬영하여 수업을 하고 과제를 내주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주의력 결핍을 호소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다. 해온 과제를 보면 영상을 잘 봤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보고 있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려고 춤까지 쳤으니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 싶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학습자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위탁형대안학교는 컴퓨터실이 없다. 노트북이 있기는 하지만 수업을 하며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고, 핸드폰 사용은 금하고 있어 스스로 뭔가를 찾고,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10분 영상을 보고, 자신의 방식대로 과제를 하도록 하니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작문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 연계로 학생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를 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결과물을 확인했을 때는 놀라움과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다. 가능성을 열어두니 끼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오프라인이었다면 꺼렸을 본인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도 온라인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안전함이 확보된 자기 공간에서, 자기 성장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플립러닝 + 온라인의 장점이었다.

개별성으로

두 번째 기쁨은 모두에게 수업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이 갖는 개별성 덕분이다. 어느 교실이나 격차가 있지만, 위탁형대안학교의 교실은 정말 극과 극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섞여 있는 이 교실은 초식동물과 맹수가 같이 있는 작은 케이지 같다. 주도권을 잡는 것은 보통 으르렁거리는 맹수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와 줄다리기를 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을 비꼬거나 무시한다. 초식동물은 쉽게 제압된다. 긍정적 역동을 불러일으키기엔 역부족이다. 온라인 수업으로 초식동물은 학습권을 보장받게 됐다. 아이들이 쪽지를 보내왔다. 수업이 너무 재미있다고 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맹수도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무리를 형성해서 으르렁거리던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개별의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 발톱을 감추고 그르렁거리며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사람은 반응한다. 물론 이 뒷배에는 학교 담임, 교무부장, 교장선생님의 엄청난 관심과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교사의 성장

세 번째 기쁨은 교사로서 느낀 연결과 성장감이다.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공유되며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명상수업에 참여한 과학 선생님이 수업 게시글에 댓글을 달기도 했고, 사회 선생님의 수업을 토대로 진로 수업에 예시를 들기도 했다. 다른 교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은, 긴장감을 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재미난 일이기도 했다. 나는 이 개방감이 수업의 권위를 해체시키고, 교실의 민주적인 성장을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개학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학교의 담당교사가 교과 강사들에게 글을 공유했다. 상호장학은 좋으나 온라인수업 콘텐츠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글이었다. 어쩌면 경쟁적인 심리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와, 이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시는구나. 나도 이걸 시도해 봐야겠다.’ ‘잘 하고 싶다’ ‘잘 만들고 싶다’ 하지만 그게 나쁜가? 나는 이 경쟁심은 다른 선생님을 이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좋은 교사가 되고 싶은 자기 경쟁이었다고 느낀다. 그리고 다른 교사들의 수업은 그 동력이었고, 좋은 자료였다. 나는 그 시기를 함께한 타 교과 선생님들에게 감사함과 동지애를 느낀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으로, 교사에게 성장으로 이어졌다.

포스트 코로나를 그리며

혼돈은 새로운 질서와 함께 온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서 온라인 수업과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¹⁾이라는 질서를 맞이하고 있다.

2020년에 우리가 경험한 그것이 응급상황에서의 기지를 발휘한 대체재 정도였다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교육의 본질적 고민부터 시작해 보았으면 한다. 근대 교육의 획일성을 벗어나 진정 이 시대에 맞는 교육다운 교육을 그리고, 기술을 활용 하자는 것이다. (근대교육 시스템 하에서 블렌디드 러닝만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과연 교육 생태계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는 이런 모습을 그려 본다.

자신이 좋아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전국, 나아가 세계의 친구들과 같이 교류하는 수업을 듣는다. MOOC를 활용하여 개별화된 맞춤 학습이

1) 블렌디드 러닝이란 혼합형 학습으로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방법을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대개 대면수업(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결합한 수업 형태를 말한다.

제공되고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배웠는지가 기록에 남아 필요한 티칭과 코칭을 제공 받는다. 말 그대로 지금의 글로벌 성장 환경을 온전히 다 누리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는 또래 아이들과 뛰놀며 아는 것을 실험하고 온몸으로 관계를 배우고 성장을 함께하는 곳이 된다. 학교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 모든 청소년시설이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학교’다. 학생들은 지역에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온라인 수업을 학교에서 들을 수도 있다. 학교에는 티칭을 보조할 수 있는 선생님, 코칭하는 선생님들도 함께 있다. 아이들이 전인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 활동과 실험, 프로젝트를 제공한다.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학생들은 관심이 가는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학교, 취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학교와 청소년 활동시설이 분리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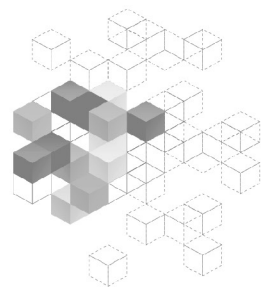
이런 교육생태계라면 우리에게는 위탁형대안학교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대안 학교라는 개념도 사라질 것이다. 학생들이 출석체크만 하고 듣는 등 마는 등 수업을 듣는 일도, 중위권의 몰락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개별적 인간이 존중되고, 한 아이의 잠재력을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앞으로의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

5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청소년활동

최지나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업무팀 팀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청소년활동

최 지 나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업무팀 팀장)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청소년수련시설 역시 현재 무엇인가 바뀌긴 했는데, 바뀐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엇이 바뀌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옳은 방향인지 모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청소년들에게도 큰 변화가 왔습니다. 학교의 온라인 개학, 무관중 스포츠 경기의 관람, 동아리 활동 등의 화상 회의, 지역 축제 및 행사 등의 전면 중지 등 청소년들의 생활 습관까지 많은 부분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관점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의 면대면이 아니면 청소년 활동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활동 자체가 청소년들이 시설 안에서 지도자와 프로그램으로써 면대면 만남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는 가운데 청소년수련시설들의 휴관도 장기화가 되어 가고 있었고, 점차 청소년과 지도자들의 대면도 힘들어졌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청소년활동의 변화는 사실 불가피한 것이었고, 청소년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지 못하다면 청소년활동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청소년 활동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코로나19’만이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직전, 불과 4~5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기관만 하더라도 청소년 이용율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았어요. 학교는 일찍 끝나지, 갈 곳은 없지, 여가 시간에 뭘 해야하는지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았기에 딱히 시설이용에 큰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다양한 활동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학교 방과후나, 돌봄 교실 등이 활성화 됨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해오던 역할들이 축소되었고, 결국 청소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시설의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 지고,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을 위한 장소가 아닌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위, 참여위, 동아리 등 특정한 일부 청소년들의 점유 공간으로

점차 바뀌어 가는 실정이었죠. 청소년수련시설의 입지가 좁아짐에 따라 청소년수련 시설은 알려야 하고, 청소년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하기에, 학교나 지역사회에 홍보 전단지를 배부 한다든지, 현수막을 건다든지 예산이 많이 드는 전통적인 홍보의 비용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었구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활동 프로그램들을 설계해보자, 청소년활동을 위한 홍보 이상의 SNS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 보자,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방법,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 이러한 부분은 많은 청소년수련시설이 한번쯤 생각해왔던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속에서 ‘코로나19’는 더 이상 청소년 활동의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고민만 해왔던, 알고는 있었으나 싫었었던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인터넷, 핸드폰 등과 같은 매체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독 된 삶이 일상화가 된 청소년에게 이제는 억제하고, 교정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오히려 독려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휴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많은 없었습니다. 비대면 혹은 제한적인 대면을 통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활동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컸습니다. 선행되었던 활동이나 교육이 없어 지도자의 역량도 좀 부족했고,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나 비대면 활동을 진행 할 수 있는 장비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바로 현장에 뛰어들어야 했기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많은 고민거리들, ‘언제’ 요즘 ‘누가’ 청소년이 대체 ‘어디’에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왜’ 하는지에 대해 그대로 프로그램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의 모든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처 하는 요즘 청소년의 육하원칙’ 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요즘 청소년 어디 있을까?’, ‘요즘 청소년 무엇을 하고 놀까?’, ‘요즘 청소년 어떻게 생활 할까?’, ‘요즘 청소년 왜 모였을까?’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20여 개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디’라는 공간의 개념을 담아 청소년이 있는 곳 온라인과 청소년의 소통 창구 핸드폰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달을 맞이한 청소년 권리와 청소년 트렌드에 대한 모바일 퀴즈쇼, 6.25 70주년을 맞이한 호국보훈에 관한 모바일 퀴즈쇼, 최근 학교폭력의 양상이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SNS로 친구들과 소통하며, 다른 학교

학생들과 무리 짓고 한 친구를 타킷으로 잡아 집중 공격하는 경우가 증가 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학교폭력 근절에 관한 모바일 퀴즈쇼와 청소년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방법중 하나인 온라인게임을 활용한 e스포츠 경연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엇’이라는 특정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집에서 있는 시간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집콕생활 - 특별한 취미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 하여, 키트제공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시간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떻게’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방법을 담아 SNS문화와 자기 표현이 결합된 미닝아웃 챌린지를 진행,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스스로 자제하는 인증사진을 게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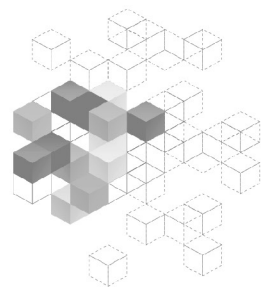
동아리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왜’ 활동을 하는지 스스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천명 단위가 참여하는 다양한 청소년 축제도 진행했었고, 백명 단위가 참여하는 활동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과는 보통 많은 청소년이 참여 했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혹은 전문적인 체험프로그램을 제공 했어, 참여 청소년들의 일부가 만족했네로 나타난 적이 많았습니다. 과거의 대면 프로그램 보다 확실히 참여자의 수는 적지만, 보다 전문적인 체험거리는 제공해지 못했지만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오히려 청소년 개개인의 집중도와 만족도는 높힐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청소년을 만나는 자리에서 사진찍기 싫어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던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개를 들어 자신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무엇을 물어봤을때 대답을 어려워만 하던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고민을 이야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래 관계에서만 그쳤던 동아리 활동이나 청소년 활동이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오히려 가족간의 대화의 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비대면이라는 특성에 기대어 스스로 없이 내뱉는 청소년들의 언어 습관에 대한 개선 부분이나 대면에서만 오는 공감 능력의 향상, 온라인상에서의 인성 교육의 필요성이 대해 앞으로 저희 청소년지도사들이 더욱 고민해 봐야 하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6

코로나 시대, 그래도 멈출 순 없다

심수현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코로나 시대, 그래도 멈출 순 없다

청소년안전망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동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다.

심 수 현 (구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1 코로나 19가 가져온 현장의 변화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고, 잠깐의 휴관으로 끝날 거 같았던 나날들이 반복되고 있을 때 청소년상담복지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이 표현하는 구조 요청을 뿌리칠 수 없어서, 휴관이라는 핑계를 걸어두고 그들을 만나야 했다. 처음에는 센터에 오지 않으니 아이들이 쉽게 이용하는 핸드폰과 영상으로 만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언택트 사업을 거창하게 시작하며 청소년들을 만날 준비를 했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영상으로 상담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고, 0.1초 늦게 전달되는 온라인상의 거리감은 점점 깊어져 상담장면에서 만나는 분위기까지 전달되지는 않았다. 아이들과 영상으로 상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체감하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만나야 하지 한숨이 늘어가는 날이 길어졌다.

센터에서는 1차적으로 고위험군 청소년들은 무조건 만나야 한다는 당위성이 커졌다. 당장이라도 죽겠다는 아이들을 뿌리칠 수 없었다. 우리의 행위들이 사회의 방역체계를 뒤흔드는 일이 될지라도 만나서 인공호흡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들을 만나는 발걸음이 무척 무겁고, 때로는 그 무게감이 짓눌려 어깨가 아프기까지 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지만...

그들을 만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을 포기하는 생각이 들어 차마 저버릴 수가 없었다. 정부의 방역체계에 반하는 행위와 아이들을 살리는 행위!! 지금도 현장은 갈등한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2 코로나 19 대응 기관사례, 프로그램 사례 등

코로나 19가 초반에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발생하여,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에서 후원금을 2,000만원 모아 대구·경북지역 센터를 응원하였다.

마스크 부족현상이 있어, 당장 필요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급한 불을 껐다. 그렇게 대구·경북만 지원하면 될 거 같았는데, 그 뒤의 상황은 전국적으로 확산해 이제는 공적마스크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그 당시 주민등록증과 등본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해야 공적마스크를 살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 학교 밖청소년이었다. 자신의 신분을 학생증으로 나타낼 수 없었고, 당장 필요한 마스크를 자신의 신분증이 없는 문제로 살 수 없는 상황, 또한 거동이 불편한 조모의 마스크를 구매해야 함에도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 사지 못하는 상황 등등의 어려움으로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에서는 몇몇 기업체에 도움요청서를 보내 마스크 총 4만장을 후원 받아, 전국 센터에 보내기도 했다. 4만장이라 해도 각 센터에 돌아가는 것은 백장, 이백장 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다.

초반에는 당장에 필요한 불을 끄기 바빴고, 코로나 19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을 때는 비대면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모든 사업을 비대면을 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최소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대면사업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움이 크다.

상담선생님이 전달해야 하는 삶의 의지, 따뜻한 온기를 영상으로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크다. 또한 공교육시스템 안에서는 긴급돌봄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돌봤지만, 학교밖청소년들을 만나는 센터에서는 온전히 비대면으로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학교밖청소년들은 방안에서 무기력감만 더 커졌다. 검정고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비대면 멘토를 연결을 해줘도 1~2번의 만남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들이 반복되었다. 그렇다면 그 당시 PC방은 출입되었던 시기에 그들이 PC방 말고 센터에 나와 개별 검정고시 준비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현장의 고민들은 방역체계를 무너지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 안 되는 행위였다.

4~5년 전부터 시작된 청소년 자해 및 자살은 청소년상담복지현장의 큰 주제였으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단계에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는 굉장히 긴장상태로 만들었다. 실 예로 팬데믹 이후의 자살률 증가라는 데이터를 접하고, 몇몇 지역에서는 실제 자살시도들로 인한 긴급개입의 사례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 외부적으로는 휴관상태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초긴장상태에 놓이기까지 했던 상황이다.

코로나블루라는 심리방역의 주제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손을 놓고 비대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기란 쉬운 일이 아님을 확인한다. 찾아가는 코로나 블루 부모상담을 시작했다. 여기서 찾아간다는 것은 장소를 불문하고 영상으로도 가능하다는 시작이었다. 인상 깊었던 의뢰사유가 생각난다. 아이의 얼굴만 봐도 화가 치민

다고 했었던 어머니가 기억에 남는다. 코로나로 인해 자녀와 장시간 같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의 감정 통제가 힘들어지는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화를 내고 반성하고, 자녀들과 지지고 볶는 시간이 반복되면서 부모들도 점점 지쳐갔다. 비대면 부모교육을 진행하면서도 울컥울컥 감정이 올라와 우시는 어머니의 모습도 스쳐간다. 다른 타인들과의 물리적 거리는 큰데, 자녀들과의 밀착된 시간들 속에서 누구와 자신의 감정을 나누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영상으로라도 만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코로나블루 부모상담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집콕청소년에 대한 고민이 든다. 은둔형청소년이란 단어로 통용된 집콕첼린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에만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은둔형청소년들과의 점점지점이 생기게 되었다. 코로나로 사회가 멈춘 이 시간이 오히려 위로가 된다는 취업준비 후기청소년의 말이 생각난다. 나만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정지된 상황에서 위로가 된다고 했다. 은둔형청소년들 또한 어찌면 모두다 집에만 있어야 하는 이런 상황들에 위로받았길 바라면서 그들의 특별함으로 만나기 힘들었는데... 이 기회에 집콕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을 내년에는 시도해봐야겠다는 용기도 생겼다.

3 코로나 시대에 변화되어야 할 현장, 정책 등 제언

청소년의 마음을 돌보는 상담복지시스템에서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을 구조하는 입장에서 항상 그들의 삶을 돌본다. 이번에도 아이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하면 어찌지? 하는 불안감이 크다. 청소년들의 적응력은 사회의 변화보다도 앞서가기 때문에 그 뒤를 쫓기 바빴던 청소년복지체계 안에서 우리가 이번에도 또 아이들을 구조하지 못한다면 영영 기대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

변화에는 혁신이 필요하고, 유연성이 필요하다. 정부시스템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고 체계 변화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을 만날 수 없어 답답했던 상황들, 학교밖청소년들의 긴급돌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최소 청소년 안전망은 방역체계 안에 가동되지 못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러 고민들이 긴급하게 변화해야 하고 결단해야 할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결단내리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처음 경험하였다. 다들 처음이라 작은 단위까지 신경 쓰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제는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여 체계의 변화, 즉 최소한의 청소년안전망이 가동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상담복지현장의 청소년안전망은 불을 끄는 소방대원과 같은 심정으로 아이들을 돌본다. 화재현장에 출동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불을 꺼야 한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듯이 위기청소년을 만나는 최전선의 안전망은 가동되어야 한다. 실제 예로 코로나가 절정 상황에 이르렀을 때 자살시도 후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없어, 청소년상담사가 옆에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대면으로 청소년을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비대면상담만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어른들의 눈을 피해 화장실로 달려가 자살시도를 하는 청소년을 비대면상담만 가능하다는 원칙으로 발길을 돌린다면, 그 청소년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누가 나뉘질 수 있을까? 방역은 지켰지만,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런 현장이 청소년상담복지현장이다. 이 체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지 청소년상담사의 고민의 무게를 같이 나눠주고, 체계의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단위가 필요하다.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2020년 제 34 회 청소년정책포럼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Tel. 044)415-2114, Fax. 044)415-2369 www.nypi.re.kr